

한국어 글쓰기 지원 커스텀GPT 설계 심층 보고서

1. 글쓰기 장르·기능·형식·스타일의 최신 분류 체계 (Taxonomy)

글쓰기는 **장르(genre)**, **기능(function)**, **형식(format)**, **스타일(style)**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대 언어학 및 작문 교육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장르 분류뿐 아니라 담화 구조나 목적에 따른 분류 체계도 활용됩니다. 주요 분류 체계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텍스트 유형 분류:**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글을 다섯 가지 텍스트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서사적(이야기)**, **묘사적**, **논증적(주장)**, **지도/명령적(설명·절차)**, **비교·대조적(설명적)** 유형이 그것입니다 ¹. 이 분류는 글의 **주된 의사소통 목적과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 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사적 글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논증적 글은 주장을 제시하며, 설명적 글은 정보나 개념을 해설합니다. 이러한 텍스트 유형 분류는 현대 담화 이론의 기초가 되며, 일부 학자는 목적에 따라 또는 주제·독자·스타일 등에 따라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¹.

- **담화 구조와 수사적 유형:** 글을 전개 구조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는 시간 순으로 전개하는 **연대기적 구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인과 구조**,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문제-해결 구조**, 두 대상을 비교·대조하는 **비교·대조 구조**, 주장과 근거 및 반론으로 이루어진 **논증 구조** 등 **여덟 가지 대표적인 글의 구조 유형**을 가르칩니다 ² ³. 이러한 구조적 분류는 글이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예를 들어 5단락 에세이는 서론-본론-결론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며 ³, 설득력 있는 논증 글은 **주장-증거-반론**의 삼단 구성을 갖추는 식입니다 ⁴. 현대 작문 교육에서는 이러한 **담화 구조 패턴**들을 파악하여 글쓰기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분류글쓰기**, **원인-결과 글쓰기**, **공간 배열 글쓰기** 등으로 세분된 형태도 있어 글의 전개 방식에 따른 세밀한 유형화가 이뤄집니다 ⁵ ⁶.

- **기능적/목적별 분류:**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 **설득**, **오락/표현** 등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 기사나 교과서 내용**은 정보 전달 기능, **광고 문안이나 사설**은 설득 기능, **소설이나 수필**은 주로 오락적·표현적 기능을 가집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는 교육학에서 쓰기 지도에 활용되며, 예컨대 학습자에게 **설명문**, **논설문**, **이야기문** 등으로 글의 목적을 인식시켜 해당 구조와 어조를 익히게 합니다. Halliday 등의 기능언어학에서는 맥락에 따른 **등록(register)** 개념으로 **일상 vs. 학술**, **공식 vs. 비공식**과 같은 상황별 기능적 스타일 차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¹.

- **형식 및 매체에 따른 분류:** 글의 **외형적 형식**이나 **매체**에 따라 **편지**, **보고서**, **논문**, **블로그 글**, **SNS 포스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글의 길이, 구성, 문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형식상 개요-본론-결론 구조와 공식적 문체를 가지며, 블로그 글은 상대적으로 구어체에 개인적 어조가 사용됩니다. 형식적인 장르 분류는 글쓰기 교육에서 각 형식별 작문 규약(예: **비즈니스 이메일 형식**, **이력서 작성법** 등)을 가르치는데 활용됩니다.

- **스타일(문체) 분류:** 스타일은 어휘 선택, 문장 길이와 구조, 어조(tone), 필체 등 글의 표현적 특징을 말합니다. 스타일은 흔히 **형식적 vs. 비형식적**, **학술적 vs. 대중적**, **간결한 vs. 화려한**, **친근한 vs. 냉정한** 등의 축으로 구분됩니다. 예컨대 **공식 보고서**는 격식 있고 객관적인 문체를, **블로그 글**은 캐주얼하고 개성적인 문체를 지닙니다. 현대에는 **톤 분석** 도구를 통해 감정적 어조(예: 기쁨, 분노, 진지함)나 사회적 어조(예: 정중함, 자신감, 협조적 등)를 자동 분류하기도 합니다. IBM Watson의 Tone Analyzer는 텍스트를 **감정tone**(분노, 기쁨 등)과 **사회적tone**(예: 예의 바름, 분석적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⁷ ⁸, 이러한 기술을 통해 문장의 **정서적 분위기**나 **대상 독자에 적합한 어조**를 파악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글쓰기에 대한 최신 분류 체계는 **한 차원의 분류가 아니라 다차원적**입니다. **장르/형식** 차원, **기능/목적** 차원, **구조/담화 패턴** 차원, **스타일/어조**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¹. 예를 들어 학술 논문이라는 글은 장르상 학술글,

기능상 정보전달+논증, 구조상 IMRaD(서론-방법-결과-논의) 구조, 스타일상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문체라는 식으로 다층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원문 텍스트의 **장르와 스타일을 추상화**하면, 새로운 글을 생성할 때 어떤 요소를 계승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2. NLP를 통한 문체·논리 구조·어조·어휘 패턴 자동 추출 및 유형화 - 최신 접근 방식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문체(style)**, **논리 구조(logical structure)**, **어조(tone)**, **어휘적 패턴(lexical patterns)**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것은 최근 NLP 및 생성 AI 분야의 핵심 연구 주제입니다. 2020년대 들어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딥러닝의 발전으로, 기계가 글의 **고유한 특징**을 학습해내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최신 접근 방식과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텍스트 스타일 추출 및 스타일 임베딩(style embedding):**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스타일 전이(Text Style Transfer) 연구에서는 내용(content)과 문체(style)를 분리하여 제어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9 10}. 이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는 특정 작가나 글의 문체를 벡터 임베딩으로 표현하고, 이를 새로운 텍스트 생성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발표된 TinyStyler 연구는 저자 임베딩(authorship embedding) 기법을 통해 작성자의 글쓰기 스타일을 벡터로 학습합니다 ¹¹. 이 방법에서는 원문을 패러프레이즈(paraphrase)하여 내용과 스타일을 분리한 뒤, 다시 재구성(reconstruction)할 때 원문의 스타일 임베딩을 조건으로 주어 동일한 문체로 복원하도록 모델을 훈련합니다 ¹². 이렇게 학습된 임베딩은 새로운 내용에도 적용 가능하며, 소량의 예시만으로도 해당 스타일을 모방한 텍스트 생성을 구현합니다. TinyStyler 결과에 따르면, 약 8억 파라미터의 비교적 작은 모델로도 GPT-4 등의 거대모델과 견줄만한 스타일 모방 성능을 보였으며, 다양한 저자-문체 간 보간(interpolation)도 가능했습니다 ^{13 14}. 이러한 임베딩 기반 접근은 문체를 수치화**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스타일 특징을 추출·비교·조합하는 데 강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 **문장 및 단락 수준의 패턴 추출:** 긴 글의 **미시적 스타일**(문장 구성, 어휘 선택 등)과 **거시적 구조**(단락 전개, 논리 흐름 등)를 모두 포착하기 위한 연구로 ZeroStylus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습니다 ⁹. ZeroStylus는 **참고 텍스트(스타일 본보기)**로부터 **문장 패턴**과 **단락 구조**를 계층적으로 추출하여 새로운 내용에 적용하는 **계층적 스타일 이전** 기법입니다. 구체적으로, **Phase 1**에서 스타일 코퍼스의 각 문장을 임베딩한 후 **군집화**하여 자주 나타나는 **논리 표현 구조**를 **문장 템플릿**으로 추출합니다 ¹⁵. 이렇게 얻은 문장 템플릿들은 해당 글의 핵심 **문장 스타일 패턴**을 압축한 **문장 패턴 저장소**가 됩니다 ¹⁵. 동시에 각 **단락의 임베딩**(문장 임베딩들을 계층적으로 합침)을 구해 **단락들 간의 담화 패턴**도 분석합니다. 임베딩 군집을 통해 대표적인 **단락 템플릿**들을 추출하며, 새 단락 패턴이 기존 것과 충분히 다를 때만 추가하여 **템플릿 풀**을 관리합니다 ¹⁶. 이렇게 문장 수준과 단락 수준의 스타일 정보를 모두 추출·구조화함으로써, 긴 글의 **전반적 논리**와 **국부적 표현**을 함께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¹⁷. 최신 연구는 이러한 **이중 계층 템플릿** 접근이, 단순히 문장만 변환하거나 통째로 스타일을 바꾸는 것보다 **내용 일관성**을 높이고 표현의 질도 향상시킨다고 보고합니다 ^{18 19}.
- **수사 구조(Rhetorical Structure) 및 담화 분석:** 글의 **논리 전개**나 **설득 구조**를 분석하는 전통적 방법으로 **수사적 구조 이론(RST)**이나 **담화구조 파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GPT 같은 LLM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미세조정(fine-tuning)**하여 이러한 담화 구조를 **자동 주석**하는 시도도 이루어집니다 ²⁰. 예컨대 한 연구에서는 GPT를 활용하여 논문 등 텍스트의 **논증 단계(move)**를 식별하거나, 문장 간 **수사적 관계**(예: 원인-결과, 예시, 대비 등)를 추출할 수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21 22}. 담화 분석을 위한 GPT 미세조정 블로그에 따르면, 담화 파싱은 텍스트의 문장·절 사이 관계를 파악하여 **응집성(coherence)**을 이해하는 작업이고, 그 하위과제로서 **수사 구조 분석**은 텍스트 내 **수직적/수평적 관계** (주장-근거, 배경-요약 등)를 밝혀 **저자의 의도와 논지 전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²³. 이처럼 **논리적 구조**를 자동 분석하면 글의 **전개 방식**과 **논증 방법**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글을 생성할 때 유사한 논리 흐름을 재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ChatGPT 같은 모델이 주제 구조 등은 잘 파악해도, 복잡한 **수사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4 25}. 따라서 완전 자동화된 구조 파악은 도전적이지만, **부분적인 자동 추출**(예: 목차 생성, 요약, 키워드 추출 등)을 통해 장문의 구성요소를 분해·분석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 **스타일 및 어조 특징 추출:** 문체를 정량화하기 위해 전통적으로는 **스타일 지표**(평균 문장 길이, 난이도 점수, 고유단어 비율 등)나 **필체특징**(예: 특정 단어의 빈도, 구두점 사용 패턴)을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 NLP에서는 이러한 **스타일 지표**를 기계 학습 모델의 **피쳐(feature)**로 활용하거나, **Transformer** 모델의 내부 표현에서 **문체 정보를 probing**하는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26 27}. 예를 들어, **Stylometric 분석**을 통해 사람 vs. GPT 텍스트를 구분하는 연구에서는, 단어 선택, 품사 패턴, 문장 길이 분포 등의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머신러닝으로도 분류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28 29}. 이는 곧 기계가 **텍스트의 고유한 스타일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LLM에 "이 글의 톤이나 스타일을 설명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주면, 모델이 **문체 프로파일**(예: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어조, 긴 문장 사용, 전문 용어 다수" 등)을 서술해주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이나 **어조 분류 모델**로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 (긍정/부정/중립, 혹은 **분노/슬픔/기쁨** 등의 정서)을 탐지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입니다 ^{30 31}. 이를 통해 글이 띄는 **정서적 톤이나 설득적 어조**(예: 협박조, 회유조 등)도 자동 라벨링하여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최신 NLP 접근법은 **대규모 언어모델의 힘**을 빌어, 사람만이 느끼던 미묘한 문체와 구조 차이를 정량적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임베딩 군집화**부터 **프롬프트 분석**, **미세조정**까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원문 텍스트의 **문체 DNA**를 추출하고자 하며, 이렇게 얻은 **스타일 특성치**들을 새로운 콘텐츠 생성에 활용하는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¹⁷.

12 .

3. 추출한 스타일·구조 특징을 생성 AI에 적용하는 사례 (스타일 재현 및 구조적 작문)

위에서 살펴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프롬프트 기반 생성모델(GPT 등)**이 특정 스타일과 구조를 재현하며 글을 쓰도록 하는 시도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실제 **AI 글쓰기 도구들과 연구 사례**를 통해 이러한 **스타일 적용**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롬프트로 스타일 힌트 주기:** 가장 간단한 방식은 추출된 스타일 특징을 **프롬프트에 서술**하여 모델에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글은 문어체로, 격식 있고 논리적인 전개를 가집니다. 이러한 스타일로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하십시오."와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GPT 계열 모델은 지시된 문체를 따르려 합니다. 상용 도구인 Notion AI는 이러한 맥락 힌트 방식을 지원하는데, **사용자 고유의 스타일 가이드**나 참고 텍스트 페이지를 프롬프트에 @멘션하면, 그 내용을 참고해 **글을 특정 톤이나 형식으로 재작성**합니다 ³². 즉, Notion AI에서는 사용자가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해둔 **스타일 가이드 문서**나 **포맷 예시**를 언급하면, AI가 이를 "염두에 두고" 출력물을 그 스타일에 맞춰준다 ³². 이처럼 명시적으로 스타일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현되며, Jasper와 같은 상용 GPT기반 서비스에서도 **"Tone & Style"** 옵션에 사용자가 원하는 문체를 적으면 출력에 반영됩니다 ³³. Jasper의 **Brand Voice** 기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브랜드의 **어조, 어휘, 금기사항** 등을 미리 설정해두고 모든 생성 결과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34 35}. 예컨대 "우리 브랜드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지만 친근하며, '고객' 대신 '파트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와 같은 규칙을 정하면, Jasper가 생성한 문장에 그 스타일이 녹아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 **스타일 프로파일 업로드 및 적용:** 사용자의 실제 글을 입력 받아 **자동으로 스타일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이후 생성에 활용하는 기능도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Anthropic의 **Claude AI**에는 2024년 말 추가된 **"Choose style"** 모드가 있습니다 ³⁶. 사용자가 자신의 글 샘플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문체를 설명하면, Claude가 내부적으로 **사용자 고유의 글쓰기 스타일을 학습**합니다 ^{36 37}. 이후 이 스타일 프로파일을 활성화하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해도 Claude가 그 사람 스타일로 대답**해줍니다 ^{38 39}.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격의 없고 유머러스한 글체를 가진다면, Claude에 스타일 예문을 주입한 후 "올해 성과보고 요약해줘"라고 물었을 때, 마치 사용자가 쓰는 것 같은 캐주얼한 어조로 답변을 생성하는 식입니다 ^{40 39}. 이러한 기능 구현의 이면에는 Claude가 **샘플 텍스트의 어휘, 어조, 문장길이, 구두점 습관** 등을 분석하여 일종의 **스타일 토큰**이나 임베딩을 설정해두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HyperWrite의 **Imitate Writing Style** 도구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본보기 텍스트(mimic text)"**를 입력하면 GPT-4 모델이 그 텍스트의 **톤, 어휘, 문장 구조** 등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초안 문장을 그 스타일로 **다시 써준다**고 설명합니다 ⁴¹. HyperWrite에서는 모방 대상 글과 변환할 대상 글을 모두 넣고 "Generate"를 누르면, **참고글의 스타일 요소들을 적용하여 입력 텍스트를 재필적**해줍니다 ⁴². 실제

안내에 따르면, 이 도구는 표면적으로는 **GPT 모델의 프롬프트**에 두 텍스트를 함께 주고 변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스타일 변환**을 얻는 UX를 제공합니다 43 41 .

- **창작 보조 도구의 스타일 매칭:** AI 기반 소설 창작 보조 도구인 Sudowrite는 사용자가 이미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는 스타일로 후속 문장을 이어쓰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Sudowrite의 "Write" 기능은 “사용자의 등장인물, 톤, 줄거리 흐름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목소리로 다음 300단어를 작성해준다”고 홍보합니다 44 . 실제로 Sudowrite는 **Story Bible**이라는 템플릿에 **장르(Genre)**와 **스타일(Style)**을 설정하면, 생성되는 소설 문체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5 . 여기서 스타일란에는 예를 들어 “문장이 짧고 위협적인 분위기의 건조한 문체”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묘사할 수도 있고, 혹은 Sudowrite가 제공하는 **“Match My Style”**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사용자의 기존 글 스타일을 추출**해 채워넣을 수도 있습니다 46 . 이렇게 하면 Sudowrite의 글 이어쓰기 또는 장면 생성 기능이 그 스타일 설정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냅니다. Sudowrite 문서에 따르면 스타일 필드가 **톤, 어휘 선택, 문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Style에 무엇을 넣느냐가 결과 Prose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7 48 . 실제 예로 “Lush prose”(무성한 문체), “Sparse and haunting, short sentences with menacing dialogue”(간결하고 음산한 문체) 등 몇 가지 스타일 프리셋을 제시하고, **장르**(예: 로맨스, SF 등)와 함께 스타일을 튜닝하면 보다 원하는 톤으로 글이 생성됨을 안내합니다 49 45 . 이는 분석단계에서 추출된 문체 정보를 생성단계 프롬프트/설정으로 녹여내는 효과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구조적 글쓰기 템플릿 적용:** 스타일뿐 아니라 **글의 구조**까지 재현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마케팅 카피 도구들은 **설득용 템플릿**(예: Problem-Agitate-Solution 공Formula)를 내장해, 사용자가 제품 설명을 입력하면 **문제 제기→해결책 제안**의 정형화된 구조로 문단을 생성해주는 식입니다. OpenAI GPT-4도 시스템 메시지에 예시를 통해 “서론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본문에서 3가지 핵심점을 순서대로 설명한 뒤, 결론에서 요약하고 Call-to-action으로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그 구조를 비교적 충실히 따릅니다. 연구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한 ZeroStylus 기법이 구조 재현의 최첨단 사례입니다. ZeroStylus는 Phase 1에서 추출한 문장/단락 템플릿을 활용해 **Phase 2에서 템플릿-가이드 생성(template-guided generation)**을 수행합니다 17 50 . 구체적으로는, 새로 생성할 원본 내용의 각 문장을 **가장 유사한 문장 템플릿**에 대응시키고, 해당 단락 전체도 **가장 유사한 단락 템플릿**에 대응시킵니다 51 . 그런 다음 (1) **문장 템플릿에서 추출한 어휘/표현 패턴**, (2) **단락 템플릿이 제공하는 구조적 맥락**, (3) **원본 문장의 의미 내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며 LLM이 한 문장씩 스타일을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52 . 마지막으로 각 문장 변환 후에 **단락 차원의 조정**을 거쳐 (이어지는 문장 간 접속어나 지시어를 맞추는 등) 최종 글이 마치 원본 스타일로 쓰인 듯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53 . 이러한 **구조+스타일 통합 적용** 접근은 실제 실험에서 **스타일 일관성, 내용 유지, 표현 품질** 면에서 기존 방법보다 향상된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됩니다 18 19 . 요약하면, 추출 단계에서 **글의 뼈대와 살**을 분리·추상화해두고, 생성 단계에서 그 뼈대에 새 살을 붙이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용 도구 사례:** 이 밖에도 다양한 AI 글쓰기 보조 플랫폼들이 **스타일 전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py.ai**나 **Writesonic** 등의 마케팅 글 생성기에서는 글 생성 전에 **Tone** 옵션을 선택하게 하여 (예: Friendly, Professional, Luxury 등) 톤만 바꿔줄 수 있고, **Rytr** 같은 툴도 미리 정의된 말투로 출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엄밀히 원문을 **분석하여 적용**한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델 출력에 스타일 제어 신호를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편 **Undetectable.ai**의 Writing Style Replicator는 사용자로 하여금 텍스트 샘플을 붙여넣도록 하고 AI가 **어조, 문장 구조, 어휘, 구두점 사용**까지 분석하여 해당 스타일을 저장한 뒤, **새 문장을 그 스타일로 생성**하게 합니다 54 55 . 이때 생성된 스타일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이름을 붙여 저장해두고, 추후 다른 콘텐츠 작성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5 . 이는 기업팀에서 브랜드 글쓰기 가이드에 맞는 글을 대량 생성할 때 유용한데, 아예 **스타일 가이드 문서 자체를 업로드**해서 거기에 맞춰 생성하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56 . 실제로 Undetectable.ai 측 설명에 따르면, “AI가 Hemingway처럼 또는 당신처럼 글을 쓰게 하라”, “팀 전체의 글쓰기 톤을 일관되게 유지하라”는 식으로 스타일 모방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57 58 .

이러한 사례들은 **원문 분석→프롬프트/프로파일 반영→글 생성**이라는 흐름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A단계에서 추출한 스타일과 구조 정보를 B단계 생성기에 먹여줌으로써, **원문의 장르적 특징과 문체적 개성을 선택적**

(syntactic)·어휘적 수준에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튜닝된 프롬프트나 개인화 모델을 통해, 마치 “나의 복사본 AI 작가”가 대신 글을 써주는 수준의 스타일 계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4. 사용자 경험(UX) 측면: 운영 시나리오와 입력 인터페이스 사례

이러한 스타일 분석·재생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입력을 받고 결과를 제공할지** UX 설계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등장한 유사 도구들의 **사용 흐름**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살펴보면 몇 가지 패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용자 원고 투입 (분석 모드)** - 사용자로부터 **원문 텍스트**를 입력받는 단계입니다. 인터페이스 예로, **문서 업로드**(PDF, DOCX 등) 혹은 **텍스트 붙여넣기** 필드를 제공합니다. Claude의 경우 채팅 입력란 아래 **“Choose style”** 버튼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 또는 텍스트 입력 창이 나와서 사용자가 자신의 글 샘플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³⁷. HyperWrite Imitate Writing Style에서는 “Mimic Text” 입력칸에 스타일 본보기 문장을, 별도 입력칸에 변환할 내용을 넣도록 UI를 구성했습니다⁵⁹. **YesChat.ai**의 Style Mimic 툴은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텍스트 샘플을 업로드하라”고 안내하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미리 제공된 스타일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직접 텍스트를 올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⁶⁰. 특히 **프리셋 스타일 목록**을 두는 것은 UX 측면에서 사용자가 영감을 얻거나 간편히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예컨대 Undetectable.ai는 CEO, 대학 교수, 저널리스트 등 몇 가지 샘플 스타일 프로필을 버튼으로 제공해 놓고,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스타일을 적용해볼 수 있게 합니다⁶¹⁶². 사용자가 자신의 자료를 투입할 때는, 업로드 직후 AI가 **분석 진행 상황**을 피드백하거나 (예: “스타일 분석 중...”) 결과로 **스타일 요약**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도구는 간단히 “스타일 프로필 X가 생성되었습니다”라고만 표시하고 넘어가지만, 고급 UX에서는 **분석된 스타일 특징 리스트**(예: “어조: 격식체, 시제: 과거형, 핵심 키워드: ~~~”)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검토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2단계: 스타일 프로필 확인/수정 (선택 사항)** - 추출된 스타일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편집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이는 필수는 아니지만, UX 관점에서 **사용자 통제권**을 높이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Undetectable.ai는 텍스트 분석 후 그 스타일을 **이름 붙여 저장**하게 하고, 원한다면 세부 스타일 지침(금지어, 선호어 등)을 **편집 또는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⁵⁵⁵⁶.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기업 사용자들이 **브랜드 스타일 가이드**를 AI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일반 사용자가 AI가 잘못 추론한 부분(예: AI는 문체를 “빈틈없고 딱딱함”으로 판단했지만 사용자는 “약간의 유머를 원함”)을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Notion AI의 경우 사용자 문서 내에 이미 **스타일 가이드 페이지**를 작성해 두었다면, 분석 과정 없이 곧바로 그 페이지를 참조하여 글을 고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³². 한편 Claude의 스타일 학습 기능에서는 업로드 후 별도로 편집 단계는 없지만, **“Describe your style”** 옵션을 두어 사용자가 샘플 대신 스스로 자신의 문체를 요약해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⁶³. 이처럼 **샘플 기반**과 **설명 기반** 두 가지 입력 경로를 제공한 것은 주목할 UX 특징인데, 샘플이 부족하거나 글보다는 **규범적 지침**으로 스타일을 정하고 싶어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예: “나만의 스타일: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이모티콘은 쓰지 않고, 가벼운 농담을 섞는다” 등). 이러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챗봇식 인터뷰** 형태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시스템이 “당신의 글쓰기 스타일을 몇 가지 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글을 쓸 때 보통 구어체를 선호하시나요? 2) 유머를 즐겨 쓰시나요?” 등을 물어본 뒤 답을 기반으로 스타일 프로필을 생성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현재 시판된 도구 중에 명시적으로 이런 **대화형 설정 마법사**를 채택한 예는 드물지만, **Persona 설계** 경험을 살려 UX를 개선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 **3단계: 주제/과업 입력 (생성 모드)** - 이제 사용자로부터 **생성할 글의 주제나 과업**을 입력받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AI 글쓰기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UI로는 **프롬프트 입력 창**이나 **대화형 챗봇 인터페이스**가 사용됩니다. 특이한 점은, 앞 단계에서 스타일이 설정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태그나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현재 어떤 스타일 프로필이 적용 중인지 알리는 것입니다. Claude에서는 스타일 선택 후 채팅창에 “Writing style: [사용자 이름]”과 같이 라벨이 나타나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줍니다³⁹⁶⁴.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주제 X로 500자 글 써줘”라고 요청하면, Claude가 앞서 학습한 스타일로 답변합니다³⁸⁶⁴. HyperWrite 등에서는 아예 **한 번의 양식 제출**로, (1) 스타일 참조 텍스트, (2) 작성할 내용 지시를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어, **버튼 클릭 한 번**에 변환 결과를 바로 얻는 형태입니다⁵⁹⁴¹. 두 방식 모두 사용자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자는 **스타일 세션 유지** 개념이 있고 후자는 **일회성 변환**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커스텀GPT라면 전자처럼 **모드 A(분석)**와 **모드 B(생성)**를 분리하여, 모드 A로 여러 글을 분석해 스타일 프로필을 축적해두고 모드 B에서 골라 쓰는 식으로 UX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단계: 출력 및 편집** –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UI/UX 상의 고려점은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 루프**입니다. 대부분 도구는 결과물을 바로 에디터에 넣고 사용자가 직접 고치게 하거나, **재생성 버튼**으로 몇 가지 버전을 비교해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Sudowrite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옵션(문단)**을 생성해 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채택하거나 필요시 섞어서 쓰도록 합니다 ⁴⁴. YesChat Style Mimic도 “여러 버전을 생성하여 최상의 매치를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한 번 요청 시 n개의 변형된 텍스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⁶⁵. 이러한 **다중안 제시**는 창작 지원 도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UX 기법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또한 결과가 나온 뒤 “**더 정중하게 수정**”, “**길이를 줄이기**”, “**특정 단락만 다시 쓰기**” 등의 **후편집(post-editing)**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Notion AI는 예컨대 결과 텍스트를 드래그하면 “**어조 바꾸기(Change tone)**” 옵션이 나타나, 전문적/캐주얼/직설적 등 몇 가지 톤으로 바로 재작성해주는 인터랙션을 지원합니다 ⁶⁶ ⁶⁷. 이처럼 **생성 이후의 세부 조정**까지 UI에 녹여내면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며 원하는 스타일에 가까워질 때까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만족하면 **확정(accept)**하거나 **복사**하여 자신의 문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스타일 분석-생성 시스템의 UX**는 보통 “**자료 입력 → 스타일 설정/확인 → 글 생성 → 결과 편집**”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자신의 **글쓰기 분신 AI**를 다루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타일 프로필 관리**를 직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Claude의 사례처럼 모드 전환을 명확히 하거나 ³⁷, Undetectable.ai처럼 여러 스타일을 이름 붙여 저장해두고 불러쓰게 하거나 ⁵⁵, Sudowrite처럼 글쓰기 화면 내에 스타일/장르 설정칸을 두고 수시로 조정하게 하는 등 ⁴⁵, 스타일을 **눈에 보이는 설정값**으로서 다루게 하는 UX가 좋은 참고가 됩니다. 반면, 스타일 적용이 보이지 않게 이뤄지면 사용자가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예컨대 “이 글은 Hemingway 스타일로 작성되었습니다” 같이 메타정보를 표시해주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자신의 글을 어떻게 대체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글이 나오는지**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도록 해 주어야, AI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5. 전 세계 유사 생성형 글쓰기 도구의 사용 흐름 및 UI 사례

위에서 일부 언급한 도구들을 포함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글쓰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용자 흐름(use flow)**과 **UI 디자인**은 본 시스템 구현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HyperWrite** – AI Writing Assistant로 불리는 이 플랫폼은 다양한 글쓰기용 GPT 톨 모음을 제공하는데, 그 중 “**Imitate Writing Style**” 기능은 **두 개 텍스트 입력창**으로 UI를 구성합니다 ⁵⁹. 하나에는 **스타일 본보기 텍스트**를, 다른 하나에는 **변환할 대상 텍스트**를 넣고 **Generate**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⁵⁹ ⁴¹. 이 흐름은 앞서 설명한 **스타일 전환 일회성 수행**에 해당하며, UI가 명확히 두 입력을 구분해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HyperWrite의 메인 에디터는 문맥 기반으로 **다음 문장 추천**, **문장 개선** 등 기능을 제공하지만, Imitate Style은 별도 톨로 독립시켜 필요할 때만 창을 불러 쓰는 방식입니다. 이는 스타일 모방 기능이 항상 켜져 있기보다는 **툴박스에서 꺼내 쓰는 도구**처럼 인식되게 합니다.
- **Sudowrite** – 소설가 보조 AI인 Sudowrite는 **스토리별 대시보드**를 두고, 우측에 **Story Engine** 패널을 통해 아웃라인과 스타일을 설정한 후 자동 작문을 진행합니다. UI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Genre**”와 “**Style**” 설정 필드로, 사용자가 소설 프로젝트마다 장르와 스타일을 입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⁴⁵. 또한 **Write**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편집창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어지는 문장을 제안하는데, 이때 **Tone**(말투)이나 **내용 방향**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모드 선택** 창이 뜹니다 ⁶⁸. 예를 들어 Guided Write 모드에서는 “이 장면을 느린 페이스로 더 자세히 묘사해줘”, “대화를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줘” 등 추가 지침을 줄 수 있어, 생성 결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⁶⁹. 이러한 UI는 단순 프롬프트 한 줄보다 **세분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비전문가 사용자도 **드롭다운이나 버튼**으로 스타일을 바꿔볼 수 있게 합니다. Sudowrite 사례에서 배울 점은, **전문 용어** 대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Lush prose” 같이 시적인 용어도 예시로 들면서).
- **Jasper** – Jasper는 기업 마케팅용 AI로 시작하여 범용 글쓰기 도구로 확장 중인데, UI/UX적으로 **템플릿 기반 생성**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블로그 글쓰기** 템플릿을 고르면 순서대로 **제목 입력 → 키워드 입력 → 말투 선택 → 구체 지시** 등의 **폼(form)**이 나오고, 마지막에 “생성”을 누르면 그에 맞춰 결과물이 나옵니다 ⁷⁰ ⁷¹. 여기

서 **Tone & Style 필드**에 사용자가 원하는 어조를 기입할 수 있고, Jasper가 추천하는 톤 키워드 (친근한, 전문가다운 등)도 탭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70 . 또한 Jasper의 최신 **Brand Voice** 기능에서는 아예 **브랜드 문서나 URL을 업로드**하면 AI가 해당 콘텐츠의 스타일을 학습해 **Voice Profile**을 생성해줍니다 72 73 . 이후에는 모든 템플릿에서 이 Voice Profile을 적용할지를 ON/OFF로 선택 가능하여, 한 번 학습한 스타일을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72 33 . Jasper의 UX는 기업 사용자가 다수인 만큼 **협업 기능**도 고려되어 있어, 팀원 누구나 동일한 브랜드 스타일을 적용받도록 **중앙 통제식**으로 프로파일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달라도 AI가 쓴 문체는 통일**시키는 효과를 노립니다 74 57 .

- **Undetectable.ai** - 이 도구는 흥미롭게도 **AI 콘텐츠 탐지 회피**를 위한 리라이팅 툴로 알려져 있는데, 부가 기능으로 **Writing Style Replicator**를 제공합니다. UI는 홈페이지에서 **“Paste some text... and our AI will copy the style!”**라고 매우 간단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75 76 . 텍스트 입력창 하나만 있고, 하단에 **샘플 프로파일 버튼들**(CEO, PhD 등)과 **사용 방법 안내**가 나옵니다 77 61 . 사용 방법은 5단계로 도식화되어 있었는데: (1) 텍스트 샘플 붙여넣기 (PDF/DOC 업로드도 지원 예정) → (2) AI가 톤, 구조, 어휘, 문장부호 등을 분석 → (3) 해당 스타일이 이름과 함께 저장됨 → (4) 그 스타일로 새 콘텐츠 생성 → (5) 원하면 스타일 가이드 편집/업로드 54 55 . 이러한 절차를 **일러스트 아이콘**과 함께 단계별로 보여줘 처음 온 사용자도 이해하기 쉬운 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3번: 스타일 저장**이라는 개념을 넣은 것이 UX 차별점인데, 다수의 스타일을 누적 관리하고 싶어하는 수요(예: 각기 다른 필자의 스타일 여러 개를 AI에 학습시켜두기)를 미리 포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YesChat.ai - Style Mimic**: YesChat은 여러 GPT 봇을 모아놓은 웹플랫폼으로, 그 중 Style Mimic GPT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제공됩니다 78 . 일반 채팅창 상단에 AI가 “안녕하세요! 글쓰기의 예술을 함께 탐구해봅시다.” 같이 인사하며, 곧바로 “In the style of an eloquent and descriptive narrative, describe...” 등의 예시 프롬프트 버튼을 나열해줍니다 79 . 이러한 **예시 문장 버튼**은 사용자가 어떻게 이 봇과 상호작용할지 감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Core Functions** 섹션에서 이 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주는데, **Style Analysis, Style Replication, Custom Content Generation**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기능과 각각의 사용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80 81 . 예를 들면 Style Analysis 시나리오로 “비서를 통해 임원의 간결한 문체를 분석하여 대필 메일에 반영” 같은 것을 들고 82 , Style Replication 시나리오로 “Maya Angelou 시풍을 모방한 창작 연습 자료 생성” 등을 듭니다 83 . 이러한 **스토리텔링형 UX**는 사용자가 “아, 이런 용도로 내가 이 도구를 쓸 수 있겠구나” 미리 상상하도록 유도합니다. **사용 방법** 안내도 자세히 제공되는데, **스타일 선택 또는 샘플 업로드 → 파라미터(글 길이 등) 설정 → 텍스트 생성 → 검토 및 재조정**의 단계를 거치도록 나와 있습니다 60 84 . 이는 우리 시스템의 이상적인 흐름과 거의 동일하며, YesChat은 이것을 웹 상에서 **대화형으로 풀어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Notion AI, Google Docs의 AI 작성기, Wordtune Spices, GrammarlyGO** 등 수많은 플랫폼이 각기 다른 UI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트렌드는: (a) 사용자 자신의 컨텍스트(문서 내용, 스타일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b) 결과를 받은 후 추가 편집/재생성 인터랙션을 제공하며, (c) 복잡한 옵션은 가급적 감추고 필수적인 것만 노출시켜 초심자도 쓰기 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볼 때, 한국어 커스텀GPT 글쓰기 도구도 **“간편하지만 강력한” UX**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단순한 채팅/에디터 UI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사용자 문체 프로파일링, 프롬프트 템플릿 생성, 맥락 추적 등 복잡한 기능이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 긴 글의 해체와 추상화,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자동화

지금까지 한국어 글쓰기 지원을 위한 커스텀GPT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질문이었던 **“긴 글을 어떤 기준으로 해체·분석해야 새로운 글을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장문의 글은 **여러 층위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제와 목적**이라는 상위 맥락, **큰 구조(서론-본론-결론 혹은 기승전결), 중간 구조(단락 단위의 논리 흐름, 수사적 관계), 미시 구조(문장 스타일, 어휘 선택, 어조)**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글을 기존 스타일로 생성하려면, 우선 원문을 이러한 층위별로 **해체(deconstruct)**하여 **추상화된 설계도**를 얻어야 합니다. 이 설계도에는 그 글의 **장르적 특성, 전개 구조, 논증 방식, 문체적 특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원문

이 어떤 블로그 기술 칼럼이라면, 분석 결과: 장르는 “기술 블로그 (정보전달+개인견해)”, 구조는 “문제 제기 - 해결책 나열 - 요약” 패턴, 논조는 “전문적이면서 대화체를 섞은 친근한 톤”, 스타일 특징은 “1인칭 사용, 은유적 표현 몇 가지, bullet list 활용”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요소 추출**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NLP 기술 - **텍스트 유형 분류** ¹, **담화 구조 파싱** ²³, **스타일 임베딩 추출** ¹², **어조 분석** - 이 유기적으로 활용됩니다.

그 다음 이 추상화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의 청사진**을 작성합니다. 이는 원문의 구조 틀에 새로운 내용 재료를 채워넣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콘텐츠 생성 이전에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주제에 맞춰 원문의 전개 구조를 따라갈 초안을 만들고, 각 섹션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넣는 식입니다. 실제 ZeroStylus처럼 문장별로 패턴을 매칭해가며 생성할 수도 있고 ⁵¹ ⁵², 좀 더 간단히는 추출된 스타일 키워드를 프롬프트 앞부분에 나열하여 GPT에게 “이런 이런 스타일로 쓰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 생성과 스타일 적용을 한꺼번에**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문단 X는 원문에서 문제제기 역할이었으니 새로운 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되, 어조는 부드럽게” 와 같이 **내용-구조-스타일 조건**이 통합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⁵².

마지막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사람의 편집과 품질 점검** 과정을 통해 다듬습니다. 글쓰기 자동화 도구라도 최종 글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검토하며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창작에서는 미묘한 뉘앙스나 도메인지식이 필요하기에, AI가 놓친 부분을 채우거나 지나치게 픽션으로 꾸민 부분을 바로잡는 등 **인간 편집자**의 개입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커스텀GPT 기반 한국어 글쓰기 지원 시스템은 **분석 모드(A)**에서 **텍스트 분해와 스타일 추상화**를 수행하고, **생성 모드(B)**에서 그것을 **프롬프트/모델 제어신호**로 활용하여 새로운 글을 써내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최신 연구와 도구 사례들이 보여주듯,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목표이며 ¹⁷ ⁴¹, 올바른 UX 설계와 접목한다면 사용자가 **자신만의 글쓰기 비서**를 얻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한 분류 체계, NLP 추출 기법, 사례들, UX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한국어 맞춤 글쓰기 AI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최신 언어학 담화분석 이론, NLP 학술논문 (ZeroStylus, TinyStylar 등), 및 Jasper, Sudowrite, HyperWrite, Notion AI, Claude, Undetectable.ai 등의 기능 설명을 종합하여 작성. 각주에 표시된 숫자는 해당 내용 출처를 가리킵니다. 【49】 【14】 【13】 【20】 【26】 등.

¹ Text linguistics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ext_linguistics

² ³ ⁴ ⁵ ⁶ 모든 작가가 알아야 할 글쓰기 구조의 8가지 유형

<https://textcortex.com/ko/post/%EC%84%9C%EB%A9%B4-%EA%B5%AC%EC%A1%B0%EC%9D%98-%EC%9C%A0%ED%98%95>

⁷ ToneScore | ibm-watson

<https://watson-developer-cloud.github.io/node-sdk/master/interfaces/toneanalyzerv3.tonescore.html>

⁸ IBM's Tone Analyzer Could Save You From Sending That Awkward ...

<https://www.smithsonianmag.com/innovation/ibms-tone-analyzer-will-save-you-sending-awkward-email-180956102/>

⁹ ¹⁰ ¹⁵ ¹⁶ ¹⁷ ¹⁸ ¹⁹ ⁵⁰ ⁵¹ ⁵² ⁵³ Implementing Long Text Style Transfer with LLMs through Dual-Layered Sentence and Paragraph Structure Extraction and Mapping

<https://arxiv.org/html/2505.07888v1>

¹¹ ¹² ¹³ ¹⁴ aclanthology.org

<https://aclanthology.org/2024.findings-emnlp.781.pdf>

²⁰ ²³ ²⁵ 30 Days Coding

<https://30dayscoding.com/blog/fine-tuning-gpt-for-discourse-parsing-and-rhetorical-structure-analysis>

- 21 **stylometric analysis of GPT-4o's capacity for literary style imitation ...**
<https://academic.oup.com/dsh/advance-article/doi/10.1093/llc/fqaf035/8118784>
- 22 24 **Can GPT-4o Conduct Rhetorical Move Analysis in Narrative Shor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87521771_Exploring_ChatGPT's_Capabilities_in_Creative_Writing_Can_GPT-4o_Conduct_Rhetorical_Move_Analysis_in_Narrative_Short_Stories
- 26 **Feature Extraction and Analysis for GPT-Generated Text - arXiv**
<https://arxiv.org/html/2503.13687v1>
- 27 30 **ChatGPT for NLP Tasks - InData Labs**
<https://indatalabs.com/blog/chatgpt-in-nlp>
- 28 **Unveiling ChatGPT text using writing style - ScienceDirect.com**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405844024090078>
- 29 **Unveiling ChatGPT text using writing style - ResearchGat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81491171_Unveiling_ChatGPT_text_using_writing_style
- 31 **Configuring tone analysis in applications - BMC Documentation**
<https://docs.bmc.com/xwiki/bin/view/Service-Management/Innovation-Suite/BMC-Helix-Innovation-Studio/is2102/Tailoring-applications-and-automating-processes/Creating-the-definitions-for-a-tailorable-application/Defining-the-application-business-logic-through-processes/Configuring-tone-analysis-in-applications/>
- 32 **Write in your style**
<https://www.notion.com/product/ai/use-cases/write-in-your-style>
- 33 34 35 72 **AI-powered brand voice management | Jasper**
<https://www.jasper.ai/brand-voice>
- 36 37 38 39 40 63 64 **Claude AI can now mimic your writing style | Croma Unboxed**
https://www.croma.com/unboxed/claude-ai-can-now-adapt-to-your-unique-writing-style?srsltid=AfmBOooZMNob3oRoNGEfrVuhnDY-F516_6zEGo6GPK80ph0WRgAi_urD
- 41 42 43 59 **Imitate Writing Style | AI-powered writing style imitator | HyperWrite AI Writing Assistant**
<https://hyperwriteai.com/aitools/imitate-writing-style>
- 44 **Sudowrite - Best AI Writing Partner for Fiction**
<https://www.sudowrite.com/>
- 45 46 47 48 49 **Style – Sudowrite | Documentation**
<https://docs.sudowrite.com/using-sudowrite/1ow1qkGqof9rtcyGnrWUBS/style/4gqKgVVjdN6XTKo71HChqV>
- 54 55 56 57 58 61 62 74 75 76 77 **Writing Styles Replicator – Mimic Any Writing Style with AI**
<https://undetectable.ai/writing-style-replicator>
- 60 65 78 79 80 81 82 83 84 **Style Mimic-Free AI Style Adaptation Tool**
<https://www.yeschat.ai/gpts-9t55QnmzcRP-Style-Mimic>
- 66 **The Ultimate Guide to Notion AI: Your Smart Writing Partner to Beat ...**
<https://www.communeify.com/en/blog/notion-ai-guide-smart-writing>
- 67 **Notion AI - Matthias Frank**
<https://matthiasfrank.de/notion-features/notion-ai/>
- 68 **Using Sudowrite's Write Butto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AaL7qDjVXk>

69 **Sudowrite Review: Is This AI Writing Tool Worth Trying?**

<https://prowritingaid.com/sudowrite-review>

70 73 **Introducing Jasper Brand Voice**

<https://www.jasper.ai/blog/introducing-brand-voice>

71 **Jasper Brand Voice**

<https://jasper-academy.ai/collections/2d9cdd38-edca-11ed-95a4-06241d837287>